



나주보건소,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나주시 보건소는 최근 제73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나주목사교을시장 광장 일원에서 구강보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와 지역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치아 관리를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여수 대교동 채소 나눔

여수시 대교동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8명은 최근 할매·할배 텃밭에서 가꾼 상추, 깻잎 등 채소를 경로당 4곳에 전달했다. 대교동의 할매·할배 텃밭은 600㎡ 규모로 예매산 아래 마련됐다.



국립나주병원-전남우정청-전남정신건강센터 MOU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5일 우체국 집배원 정신건강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전남지방우정청,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포대 전국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

목포대학교에서 주최하고 미술학과에서 주관한 제16회 전국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가 최근 목포대 도림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미술실기대회는 전국에서 313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해 열띤 예술혼을 펼쳤다.

“광기반 의료기기 개발, 최선 다 할 것”

중기인대회 모범중기인 부문 대통령 표창

■링크옵틱스 최 용 원 대표

“광기반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꾸준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주)링크옵틱스 최용원 대표가 지난 달 열린 2018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모범중기기업인 포상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중소기업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하는 상으로 그 의미가 깊다.

최용원 대표는 지난 2004년 광기반 의료기기 전문기업 ㈜링크옵틱스는 설립했다. 의학 분야 뿐 아니라 위산업진흥회와 국방벤처회사로도 활동하며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융합 및 의료분야에 국제특허(PCT)를 포함 71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의료기기 분야에 조예가 깊다.

김 대표가 출시한 저출력 광선조사기 벨라룩스(Bellalux)는 국내외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서 유명하다. 특히 피부 미백과 재생 분야에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더구나 전남대학교 피부과 이자범 교수(대한여드름학회 회장)팀의 임상을 통해 효용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세계피부가 저널에 등재되며 중소기업계의 위상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 전시회(Kimes 2018)에

서 선보인 벨라룩스 라이트(Bellalux Lite)는 발모촉진과 더불어 세모 및 탈모방지 기능이 추가돼 두피케어시장에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링크옵틱스 최용원 대표는 “광과 학연구소(ADD)로 부터 국방부 보유 기술 (플라즈마를 이용한 탄저균 제독)을 기술이전 완료해 현재 보건의료계의 주요한 화두인 병원 감염균 제독 분야에 제품을 개발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임춘택 GIST 교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선임

GIST 융합기술학제학부의 임춘택 교수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 교수는 지난 5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 교수는 제20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자공학으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KAIST 부교수를 거쳐 2016년 10월부터 GIST 융합기술학제학부 소속교수로 재직, 무선통신과 전기자동차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임 교수는 지난해말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에너지 정책과 산업정책 등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를 담당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5대 산업의 육성에 주력했으며, 2015년 국제전기전자학회 최우수논문상, 2016년 KAIST 대표 연구 성과 등에 선정됐다.



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에너지 정책과 산업정책 등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를 담당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5대 산업의 육성에 주력했으며, 2015년 국제전기전자학회 최우수논문상, 2016년 KAIST 대표 연구 성과 등에 선정됐다.

/황애란 기자



산림조합, ‘숲 전문지도자’ 모집

2018년도 산림경영지도원 14일까지 접수

산림분야 전문 지도자인 산림경영지도원 모집이 본격 시작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림경영지도원은 산주·조합원·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림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산림분야 전문 지도자로서 전국 산림조합에서 근무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14일까지다. 필기시험은 이달 23일 서울 신촌중학교에서 열린다. 면접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고등학교 이상의 임업분야학과 졸업자 △산림분야 산업기사 응시자격 이상의 학력 △고등학교를 졸업 후 산림사업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등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최근 남북간 산림협력과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산림분야 일자리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3일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합격자는 전국 산림조합 중 산림경영지도원 결원이 발생한 지역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서미애 기자

윤석년 광주대 교수, 방송자문특별위원장 위촉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윤석년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임기는 2019년 5월31일까지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교수와 법조인, 시민단체, 방송계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 사항 자문 ▲양성평등 또는 인권보호 등 방송내용에 대한 조사·분석 ▲방송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제·개정안 제안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자문 등을 맡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의 자문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기존 보도·교양 방송특별위원회와 연례·오락방송특별위원회를 방송자문특별위원회로 통합했다.



광주대 신문방송사 주간을 맡고 있는 윤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6·13 지방선거 레이다 D-6

강인규 “나주다운 나주 만드는 대장정 앞장”

강인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후보는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6일 남산공원 현충탑 앞에서 거행된 추념행사에 참석했다.

강인규 후보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나주를 지키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의 우리와 나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도리는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며, 우리의 책무는 그분들의 고귀한 정신과 뜻을



이어나라와 나주의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어 “나주를 다시 호남의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나주다운 나주를 만드는 이 위대한 대장정에 강인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신홍기 기자

정중순, 불법선거감시단 발대식

정중순 무소속 장흥군수 후보는 6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중심으로 불법선거감시단의 발대식을 가졌다.

불법선거감시단은 일반 오프라인 감시단, 온라인·SNS 모니터링 감시단, 심야 현장순찰 및 긴급대응 올빼미팀 등의 분류로 활동을 시작했다. 각 산업 분야별 볼특정 곳곳에 공명선거를 위한 예방과 감시를 위한 선거관련 기본지식 및 사례교육은 물론 법률 자문을 통해 불법선거 관련 정보 분석



에 나선다. 정 후보는 “불법선거감시단 및 긴급현장출동 TF팀 운영으로 불법적인 행위,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부정선거감시, 빈틈없는 상시관리 체계 구축으로 장흥의 선거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박우량 “벼농사 경쟁력 제고”

박우량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벼농사는 거의 기계화되어 있어 각종 농기계 구입에 따른 투자비용이 농가부채에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벼농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우량 후보는 “소규모 농가들을 묶어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단위로 재배하도록 하고 소모되는 각종 농기계 구입비를 대폭 지원하겠다”며 “사용연한을 1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보관창고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벼농사 수확 예상량의 80% 수준에서 농협과 협약을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자의 일정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 원금은 벼농사 판매시 일괄 상환토록 하는 등 농민월급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주열 기자

손훈모, 허석 후보 마약커피사건 고발

손훈모 무소속 순천시시장 후보가 “허석 후보의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마약커피 의혹사건은 허석 후보가 설계 기획한 기획정치테러”라고 규정된 뒤 “검찰은 조속한 재수사를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라”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손 후보는 지난 5일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석 후보는 28만 순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되면 순천이 불행해 진다는 확신이 들어 이번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말문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희생양까지 다 정해질 정도로 치밀한 범죄이며, 범죄의장본인이

임흥빈 “하의·신의·장산 경제 공동체 돼야”

임흥빈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는 최근 하의·신의·장산을 방문해 지역민들에게 “삼도(하의·신의·장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삼도가 하나로 묶여 경제 공동체가 돼야 시너지효과가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장산도와 신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선장장 물양장 확충부터 대성산성 복원과 장산들노래 상설 전수관을 설립하는 등 왕새우 양식업자들을 위한 중·소형 냉동보관 창고 보급사업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일염 가격안정을 위해 최소생산량을 지자체와 생산자가 공동 참여해 분석해 지원하는 방안과 수매량 및 수매예산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폐전과 폐업 지원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서정진 “순천시의회 변화 혁신 이끌 것”

서정진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의회원(가선거구) 후보는 6일 “이번 선거에 당선된다면 3선 시의원이 된다”며 “7대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순천시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강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순천시의회 변화 혁신을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을 꼭 뽑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3선 시의원이 된다면 순천시의회 의장에도 도전할 계획이



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상사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연관관리단이사를 역임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됐고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재입성, 7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순천=박경식 기자